2014년 5월 28일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기청 벤처정책과 이준희 과장(042-481-4383), 조희수 서기관(4536)

"벤처·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대책" 성과 점차 가시화

–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업계도 체감 효과 –

□ 우리나라 **벤처창업 생태계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**이 보이고 있다.

○ 지난해 5월부터 정부는 **「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」을 시작**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.

○ **1년이 경과**된 지금 **통계와 수요자의 체감도**를 통해 **생태계 변화를 살펴**보면,

- 최근 **신설법인수가 역대 최고치('14년 1/4분기 최초 2만개 돌파)를 갱신**하고 대학내 **창업동아리·창업강좌 등이 대폭 확대**되는 등 **창업활성화 분위기가 확산**되고 있으며,

- 투자부문에서도 **엔젤클럽이 활성화('12년 58개→ '14년 4월 103개)**되고 **벤처펀드 조성과 투자가 대폭(381%) 증가**되어 벤처기업 등 **정책수요자의 생태계 개선 체감도가 높은 것**으로 나타났다.

* 펀드조성액 : 전년동기 대비 381% 증가('13.1Q 1,892억 → '14.1Q 9,099억)

* 정책개선 체감도(5점만점) : VC 3.7점, 재도전기업 3.6점, 엔젤 3.5점, 창업기업 3.4점, 벤처기업 3.3점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평가하기에는 **아직 이른 시기**이긴 하나,

○ 엔젤소득공제 확대 등 **세제지원 강화 법령과 펀드 투자** 등이 **올해부터 본격화**되고 있음에 따라

○ 지난 **1년간의 변화 모습을 점검**하여 **미흡한 사항은 보완**하고 **성공사례는 확산**한다는 차원에서 **통계분석과 4천여 명의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**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.

1. 최근 벤처창업 동향

□ **(창업)** '14년 1/4분기 **신설법인수**는 **최초 2만개(20,761개)를 돌파**하고 전년동기(18,984개) 대비 **9.4% 증가**하였다. **4월 신설법인수도 7,226개로 전년동월(6,376개)보다 13.3% 증가하였다.**

<신설법인수(한국은행, 중기청)>



○ 대학의 **창업동아리(1,833개 → 2,949개)도 전년대비 61% 증가**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도 **3만명(22,463명→29,583명)에 육박**하는 등 **대학생의 창업 열기가 높은 것**으로 조사되었다.

구 분	'12년	'13년	'14년 5월	비고
창업특기생	6개대학 100명	7개대학 120명	13개대학 229명	91% 증
창업강좌	133개 대학 965개 강좌	135개 대학 1,051개 강좌	282개 대학 2,561개 강좌	144% 증
창업동아리	1,222개 동아리 18,027명 활동	1,833개 동아리 22,463명 활동	2,949개 동아리 29,583명 활동	61% 증

* 대학창업인프라 실태 전국조사 (중기청, 창업진흥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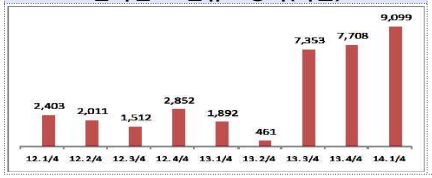
○ 정부의 **기술창업자 육성사업**을 지원 받은 **창업기업에서도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사례** 등이 나타나고 있고, 지난해 도입된 **이스라엘式 투자보육**을 받은 기업은 **미국 등 7개국으로 사업을 확장**하였다.

[창업사례] 국내시장 선점 후 해외 서비스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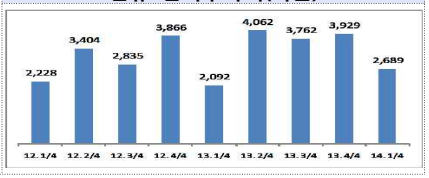
☞ '12년 창업한 K기업은 세계 최초로 영유아 보육 관련 스마트알림장 서비스를 시작하고, 투자연계형 창업지원 사업(엔젤투자 : 5억원, R&D자금 : 2.5억 원)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(미국, 호주, 중국 등 7개국 서비스 시작)

□ **(투자)** '14년 1/4분기 **신규 조성된 펀드**는 **9,099억 원**으로 전년동기(1,892억 원) 대비 **381%증가**하였고, **벤처투자**도 '13년은 '01년 이후 **최대치**(1조 3,845억 원)**를 시현**하고 올해 1/4분기는 **2,689억 원**으로 전년동기(2,092억 원) 대비 **28.5% 증가**하였다.

<벤처펀드 신규조성액(억원)>



<신규 벤처투자액(억원)>



* 벤처펀드 규모는 창투조합+한국벤처투자 조합 합계(신기술 조합은 제외)

○ 엔젤투자에 대한 **소득공제가 확대**되고 **전문엔젤 제도 도입**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**엔젤 등록자수**('12년 2,610명 → '14년 4월 5,679명) 및 **엔젤클럽수('12년 58개 → '14년 4월 103개)가 급증**하였다.

* 엔젤소득공제 확대(조특법, '14.1) : (기존) 30% → (개선) 5천만원까지 50%
* 전문엔젤 도입(벤처법 개정 '13.12, 시행 '14.7) : 벤처투자 인정, R&D 연계지원

[사례] 엔젤펀드 유치로 생산시설 확보하고 대형마트 납품 등 급속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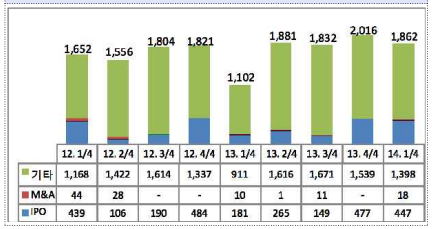
☞ 고압 무균즉석밥을 생산하는 H사는 '12년 창업하여 금융권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으나, '13년 4월 엔젤펀드 4억 원(2억+2억)을 투자 유치

☞ 투자금으로 생산시설 확보하고 대형마트 납품 성공 등으로 급속 성장
* ('12년) 1.8억 원 → ('13년) 6.7억 원 → ('14년) 25억 원(예상)

□ **(회수)** '14년 1/4분기 VC의 투자회수금액은 1,862억 원으로 **예년(2년 평균 1,708억 원) 비교**하여 **9% 증가**하여 **다소 나아지는 모습**이다.

○ 1/4분기 **코스닥(3개)과 코넥스(3개) 신규 상장이 정체**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**지난 4월 발표한 '기업상장활성화 방안'이 제대로 추진되어 회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**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벤처펀드 유형별 회수현황(억원)>



	12. 1/4	12. 2/4	12. 3/4	12. 4/4	13. 1/4	13. 2/4	13. 3/4	13. 4/4	14. 1/4
기타	1,168	1,422	1,614	1,337	911	1,616	1,671	1,539	1,398
M&A	44	28	-	-	10	1	11	-	18
IPO	439	106	190	484	181	265	149	477	447

<코스닥/코넥스 신규 상장 현황(개)>



□ **(재도전)** 올해부터 **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강화**한 결과, 1/4분기 **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활용건수**는 증가('13년 5건 → **'14년 1분기 58건, 중진공**)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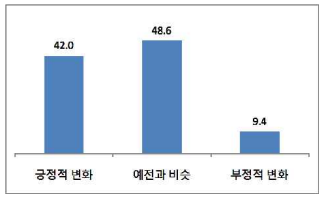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지난해 법원과 공동으로 **63개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**한 결과 **회생인가율이 상승(30%→42%)**하고 **소요기간(10개월→6개월)**과 **비용(73%↓)**이 **감축**되어 실패기업의 재기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.

2. 벤처업계 설문조사 결과

□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, 창업·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**4천여명의 벤처창업 정책 수요자를 대상**으로 **정책체감도와 생태계 변화 모습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**하였다.

* 창업기업(500), 벤처기업(3,000), 엔젤투자자(100), VC(60), 재도전 기업(700)

□ **(정책 체감도)** 벤처·창업 생태계가 **긍정적 변화 중**이라는 **응답(42.0%)**이 부정적 응답(9.4%)보다 높아, **정책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**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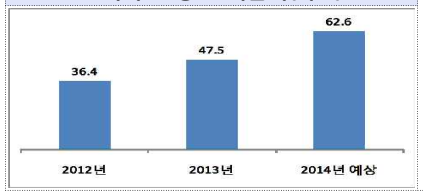


○ **정책대상별로는 VC(3.7점/5점 만점), 재도전기업(3.6점), 엔젤(3.5점),** 창업기업(3.4점), 벤처기업(3.3점) 순으로 체감도가 높으며, 정책별로는 기업의 경우는 **재도전 환경(3.6점)이, 투자자의 경우는 엔젤투자환경(3.7점)이 많이 개선**된 것으로 평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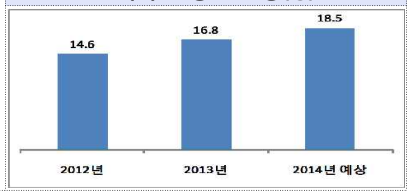
□ **(대상별 변화 모습)** 정책수요자별 변화 모습을 보면,

○ 설문에 응답한 벤처기업의 '13년 **매출은 30.5%('12년 36.4억 원 → '13년 47.5억 원), 고용은 15.1%('12년 14.6명 → '13년 16.8명)** 증가하였고, **올해도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**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.
('14년 예상 매출 증가 31.8%, 고용 증가 10.1%)

<벤처기업 평균 매출액(억원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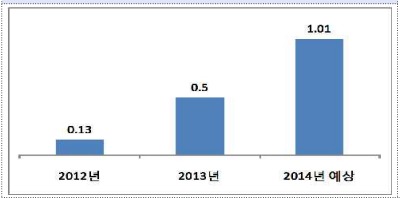
<벤처기업 평균 고용(명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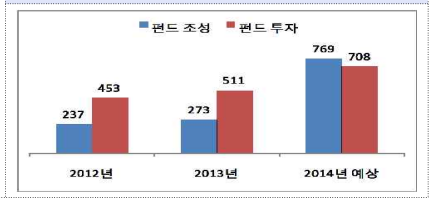
○ 엔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**53%가 투자확대 의향을 표명**하고 '13년 **평균 투자금액은 50백만 원**으로 **'12년(13백만 원) 대비 285% 확대**하였으며 **올해는 1억 원으로 확대**하겠다고 응답하였다.

○ 벤처캐피털 중에서도 **76%가 투자확대 의향**을 밝히고 있고 올해에도 펀드 조성(**'13년 273억 원 → '14년 769억 원**)과 투자(**'13년 511억 원 → '14년 708억 원**)를 확대할 것으로 밝혀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엔젤별 평균 투자액(억원)>



<VC별 평균 펀드 조성 및 투자금액(억원)>



3. 향후 계획

□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"벤처업계의 **긍정적 평가가 지속**될 수 있도록 **그간 만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**하면서,

○ 이번 설문조사 등에서 **건의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**하여 **사업개선 등 간단한 과제는 6월부터 조기 시행**하고 **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개선방안을 강구**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○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"**기술개발제품의 시장 조성, 스톡옵션 활성화, 기술력 중심의 벤처확인제도 개선 등을 중점 검토**해 나가면서,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('14.4) 등에 따른 **회수시장 활성화 모니터링**과 **벤처·창업분야의 규제완화도 지속 추진**하겠다"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조희수 서기관(☎ 042-481-45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'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' 성과점검 및 확산계획